

간경도감본 「成唯識論了義燈抄」 권3·4의 판본대조 연구

A Comparison Study on Woodblock-Printed Books of Vol. Three and Four of *Seongyoushikryoeuideungcho* in the Gan'gyeongdogam

최 중 남 (Choi, Jong-Nam)*

◁ 목 차 ▷

- | | |
|-------------------------------|----------|
| 1. 들어가는 말 | 3. 나가는 말 |
| 2. 간경도감본 「요의등초」 권3·4의 판본대조 연구 | <참고문헌> |

<초 록>

본 논문에서는 惠沼(651-714)가 「成唯識論」(護法等造)을 주석한 「成唯識論了義燈抄」(권3·4)를 판본들인 山西省 曲沃縣圖書館 소장본, 天理大 圖書館 소장본, 그리고 활자본들인 大正藏本, 卍續藏經本들과 서로 대조·연구하였다. 「成唯識論了義燈抄」는 국내에서 유일본으로서 世祖年間(1455-1468)에 판각된 刊經都監本이다. 동 판본은 板式에 의하면 宋本을 飜刻한 것이다. 「成唯識論了義燈抄」간경도감본은 2004년 1월 7일에 松廣寺 四天王像 北方天王의 복장에서 발견된 것이며, 현재 보물 제1468호로 지정되어 있다.

「成唯識論了義燈抄」간경도감본은 앞에서 언급한 판본들 및 활자본들과 대조하면 교감과정, 판각과정, 혹은 전래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량의 오기, 오각, 오류 등이 발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오기, 오류 등은 대장경의 판본이 판각되기 이전인, 즉 宋代 이전의 필사본들인 중앙아시아 돈황본들에서 주로 찾을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렇게도 「成唯識論了義燈抄」간경도감본은 판본임에도 불구하고 찬술자의 原義와 다르게 전래되고 있다. 특히 「成唯識論了義燈抄」간경도감본은 지시대명사, 명사, 조사, 접속사, 부정사, 문장 등의 삭제, 첨삭, 오기, 오류 등을, 그리고 大正藏本에서는 교감자의 오류를 각각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예들은 본 논문에서 대조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다. ① 단어의 삭제, ② 단어·문장의 첨삭, ③ 단어를 중복하여 판각, ④ 음이 같은 한자로 판각, ⑤ 동일한 의미와 음을 갖는 한자로 판각, ⑥ 의미가 비슷한 한자로 판각, ⑦ 단어·문장을 바꾸어 판각, ⑧ 단어의 倒置, ⑨ 字形이 비슷한 한자로 판각, 그리고 ⑩ 이체자 등이다.

본 대조·연구에 의하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成唯識論了義燈抄」는 2가지 유형으로서 송광사 소장 간경도감본과 山西省 曲沃縣圖書館 소장본이 일치하고, 그리고 大正藏本, 卍續藏經본이 서로 일치하다. 간경도감본은 山西省 曲沃縣圖書館 소장본과 板式이 동일하여 字形, 行·字數, 삭제·첨삭된 단어, 異體字 등이 모두 일치하다. 이에 간경도감본은 山西省 曲沃縣圖書館 소장본의 번각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존하는 「成唯識論了義燈抄」의 일부 판본들과 활자본들만을 서로 대조하여 판본 및 활자본들에 있어서 찬술자인 惠沼의 原義와 다르게 전래되고 있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와 함께 본 논문에 이어서 다양한 불교학·서지학적 후속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要語: 成唯識論了義燈抄, 刊經都監, 大正藏, 曲沃縣圖書館, 天理大 圖書館, 卍續藏經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부 교수(acaryachoi@hanmail.net)

■ 접수일: 2017년 3월 6일 ■ 최초심사일: 2017년 3월 14일 ■ 심사완료일: 2017년 3월 24일

<ABSTRACT>

In this paper, I conducted a comparative study for *Seongyoushikryoeuideungcho* (Vol. 3 and Vol. 4) in which Hui zhǎo (651-714) annotated on *Ch'èng wei shih lun* with the wood-printed books from Qū wò xuán Library and Tenri University Library, and the printed books of Taishōzō and Manzokukyō.

Seongyoushikryoeuideungcho, the only script in the nation, was the woodblock-printed book of the Gan'gyeongdogam, which was in charge of buddhist scriptures, in the period of King Sejo (1455-1468). The same woodblock-printed book was engraved as translating the book from Sòng China according to the record on the print.

Seongyoushikryoeuideungcho of the Gan'gyeongdogam was found inside the clothing of the northern heavenly King among four guardian kings in the Songgwang Temple, on the seventh, Jan, 2004, currently designated as the Treasure no. 1468.

If comparing with woodblock-printed books and other printed books I mentioned above, *Seongyoushikryoeuideungcho*, the scripture of Gan'gyeongdogam, has lots of wrong records, mis-engraved letters, and mistakes which might occur in the proofreading, engraving, or transmitting processes. Such wrong records and mistakes are those which we can find out mainly in the manuscripts of Dūnháng in the Central Asia before the period of Sòng China, when the prints of Tripitaka Koreana were engraved.

However, unfortunately *Seongyoushikryoeuideungcho* of the Gan'gyeongdogam was the woodblock-printed books, though it has been transmitted against the writer's original intention. Especially, we are able to find out deletions, corrections, wrong records, mistakes of sentences of demonstrative pronouns, nouns, propositions, conjunctions, infinitives in the *Seongyoushikryoeuideungcho* of the Gan'gyeongdogam and the errors by editors in the printed books of Taishōzō. These are as below. ① deletion of words, ② correction of words and sentences, ③ repeatedly graved words, ④ graving Chinese words which have same sounds, ⑤ graving Chinese words which have same meanings and sounds, ⑥ graving Chinese words which have similar meanings, ⑦ graving changed words and sentences, ⑧ changing words' positions, ⑨ graving Chinese words which have similar letter types, and ⑩ different letter types and so forth.

According to my comparative study, there are two types of *Seongyoushikryoeuideungcho* currently used. The woodblock-printed books of the Songgwang Temple and the books of Qū wò xuán Library are in the same type and also the prints of Taishōzō and Manzokukyō are in the same type.

The woodblock-printed books have the same styles of the books of Qū wò xuán Library - letter types, numbers of lines and letters, deleted and added words, and different style of letters etc. Therefore, we can confirm that the woodblock-printed books of the Gan'gyeongdogam was the translated and engraved prints of Qū wò xuán Library.

As a result, I wanted to say that *Seongyoushikryoeuideungcho* has been transmitted against the intention of the writer, Hui zhǎo, as compared some woodblock-printed books and manuscripts with other sources. I look forward to having various buddhist and bibliography studies following this research.

Key words: *Seongyoushikryoeuideungcho*, Gan'gyeongdogam, Taishōzō, Qū wò xuán Library, Tenri University Library, Manzokukyō

1. 들어가는 말

대각국사 義天(1055-1101)은 佛典의 經·律·論 三藏들이 각 대장경에 수록되어 전래되고 있지만 동북아시아의 중국(唐·宋·遼), 한국(신라·고려), 일본 등지¹⁾에서 찬술된 삼장에 대한 주석서인 章疏(/疏鈔)들은 어느 한역대장경에도 入藏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산일될 것을 우려하여 안타깝게 여겼다. 이에 의천은 중국, 한국, 일본 등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諸宗派의 주석서인 장소들을 수집·정리하여 하나의 一藏²⁾으로 보존하고, 그리고 교학을 널리 펴고자³⁾ 먼저 장소들을 정리한 목록으로서 宣宗 7年(1090) 8월에 제1권 경소부, 제2권 율소부, 제3권 논소부로 배열·구성하여 총 1,010부·4,857권의 『新編諸宗教藏總錄』(3권)을 편찬하였다. 이어서 1092년부터 1102년까지 『신편제종교장총록』에 수록된 장소들의 판각이 이루어졌다.⁴⁾

『신편제종교장총록』 권3에는 唯識學派의 경·론이 총 83부·661권 수록되어 있다.⁵⁾ 이들의 부·권은 유식학과의 시기별로는 원시유식기의 彌勒(Maitreya)·無着(Asaṅga), 조직유식기의 世親(Vasubandhu), 그리고 발달유식기의 安慧(Sthiramati)·護法(Dharmapāla) 등의 논사들에 의해 저술된 인도 대승 유식 문헌에 대한 찬술 주석서들이 대부분이다.⁶⁾

본 논문에서는 「신편제종교장총록」에 수록⁷⁾된 유식학과 장소 83부·661권 중에서 「成唯識論」(Vijñaptimātratāsiddhi-śāstra, 護法等造, 玄奘 參譯翻譯⁸⁾)에 대한 주석서로서 惠沼(651-714,

- 1) '개성 영통사 대각국사 비문,'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3 (서울: 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6), 122. "… 忘不講故 官蔭私褚 亡散幾盡 遂重購求書於中國 以及契丹日本 …"
- 2) 의천, "대각국사문집," 『한국불교전서』 권4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82), 553上6-9. "… 雖經論而具矣 然疏鈔以闕如 欲以千古于今大遼大宋 凡有百家之科教 集爲一藏以流通 …"
- 3) 의천, "대각국사문집," 『한국불교전서』 권4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82), 553下9-10. "… 章疏或幾乎墜失 苟存弘護 寔在."
- 4) 최종남, "중국·티베트 불전 목록들에 있어서 부와 「신편제종교장총록」에 있어서 부의 분류체계에 대한 대조 연구," 『서지학연구』 제67집 (서울: 한국서지학회, 2016), 121-122 참조.
- 5) 최종남, "대각국사 의천과 유식장소에 관한 일고," 『서지학연구』 제62집 (서울: 한국서지학회, 2015), 156-160 참조.
- 6) 최종남, "대각국사 의천과 유식장소에 관한 일고," 『서지학연구』 제62집 (서울: 한국서지학회, 2015), 157 참조.
- 7) 大正藏 55, 『新編諸宗教藏總錄』 卷3, 1175中15. "了義燈七卷 惠沼述."
- 8) 『성유식론』은 현장이 인도 유학 중(627-645년)에 『唯識三十頌』(Triṃśikavijñaptimātratāsiddhi)에 대한 주석서들을 수집하여 중국에 가지고 와 玉華寺에서 659년 10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석서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호법의 주석서를 저본으로 하고 다른 논사들이 저술한 주석서들을 參譯翻譯하여 『성유식론』이라는 논명으로 간행한 것이다. 『성유식론』은 세친이 인식론·존재론·수행론으로 분류·체계화하고 보완하여 30개의 계승으로 저술한 『유식삼십승』을 주석한 논서이다(桑上 正進·袴谷 憲昭, 『玄奘』(東京: 大藏出版, 1981), 257 참조). ; 최종남, "광교원본 『성유식론술기』 권6의 판본 대조 연구," 『고려 제종교장 학술발

혹은 慧沼, 惠照, 淄州大師⁹⁾에 의해 찬술된 『成唯識論了義燈抄』(혹은 成唯識論了義燈, 唯識論了義燈, 了義燈, 義燈 등; 이하 『요의등초』)를 世祖年間(1455-1468)에 판각된 刊經都監本과 大正藏(43, No.1830)本을 대조·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山西省 曲沃縣圖書館 소장본(卷4),¹⁰⁾ 天理大 圖書館 소장본(卷2), 활자본인 卍續藏經들을 참조하고자 한다.

혜소는 法相宗의 窺基(632-682)에 이어 2조이며, 智周(668-723)는 3조이다. 『성유식론』에 대한 한문 주석서는 107여 종이 있다.¹¹⁾ 이들은 대부분 산일되어 목록 등에서만 주석서명을 찾을 수 있다. 『성유식론』에 대한 주석서 중에서 현존하는 규기의 『成唯識論掌中樞要』(4권), 혜소의 『요의등초』, 그리고 지주의 『成唯識論演秘』(14권)는 唯識三疏라고 칭한다.

간경도감본, 곡옥현도서관 소장본, 천리대 도서관 소장본의 『요의등초』는 7권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卍속장경본은 각 권마다 本·末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권이 1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대정장본의 『요의등초』는 권3¹²⁾을 제외한 전권이 本·末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本·末을 분리하면 전권이 1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의등초』題名 중의 ‘了義燈’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는 “能釋”이다. 그리고 ‘了義’만은 “決擇”, “究竟”, “明了” 등의 의미를 갖는다. 이른바 본 주석서에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명료하게 宗의 뜻을 밝히고자 한다는 의미이다.¹³⁾ 『요의등초』는 『성유식론』(10권)과 규기가 찬술한 『成唯識論述記』(20권)의 내용 중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유식사상과 법상종의 上首로서 종지에 맞게 쉽게 주석한 찬술서이다. 그러나 혜소가 『요의등초』를 찬술하게 된 배경은 당시 활동하였던 승려들 중에서 신라계의 西明寺과 스님들인 圓測(613-695)·道證(생몰연대 미상, 692년에 신라 귀국)·太賢(생몰연대 미상)¹⁴⁾ 등과 중국 법상종의 흐름을 이은 스님들인 현장·규기·혜소·지주 등이 서로 독자적

표회 -의친의 교장, 천년의 지혜를 미래로-,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13, 147 참조.

9) 혜소는 淄州 출신으로서 淄州 大師라고도 칭한다. 俗姓은 劉씨이며, 이름은 玄이다. 혜소의 찬술서들은 『요의등초』를 비롯하여 다음과 같다. 『金光明最勝王經疏』, 『十一面神呪心經義疏』, 『因明入正理論義讚』, 『能顯中邊慧日論』, 『法華玄贊義決』, 『因明入正理論義』, 『大乘法苑義林章補闕』, 『法華纂要』, 『仁王經疏』, 『金剛經疏』, 『涅槃經義記』, 『涅槃經科文』, 『孟蘭盆經疏』, 『溫室經疏』, 『因明續疏』, 『因明纂要』, 『因明義斷』, 『二量章』, 『勸發菩提心集』 등이 있다. 西尾 京雄·富貴原 章信, 『國譯一切經和漢撰述部』論疏部19·20, 改訂版(東京: 大東出版社, 1982), 4-5 참조.

10) 송대의 醴州乾明院刻本이다. 판미제: 燈抄; 판미제의 하단에는 布施者(徐氏板)와 刻者(徐全刀)의 順으로 기록이 있으나 일부는 확인하기 어려움. 『高麗敎藏結集 및 DB構築事業 연구팀』이 소장하고 있는 판본 사진은 卷四의 卷末부분뿐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권말부분 일부만 사용하여 대조·연구하고자 한다.

11) 結城 令聞, 『唯識學典籍志』(東京: 大藏出版, 1962), 308-360 참조.

12) 권3말에 해당하는 내용은 大正藏43, 720b22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권3말의 시작부분에는 어떠한 설명이 각주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13) 西尾 京雄·富貴原 章信, 『國譯一切經和漢撰述部』論疏部19·20, 改訂版(東京: 大東出版社, 1982), 4 참조.

14) 新羅 景德王(742-764)때 활약하였으며, 그리고 慶州 南山의 茸長寺에 주석하였다.

인 사상을 갖추고 있는 관계로 인하여 혜소가 범상종 교학을 중심으로 서명사과의 원측과 그의 문하 스님들의 견해를 견제와 비판에 의해서 탄생된 주석서라고 할 수 있다.¹⁵⁾ 즉, 규기가 「성유식론」을 주석하여 「성유식론술기」를 찬술하자, 원측은 규기의 유식사상에 대한 다른 해석을 담아 「成唯識論疏」(10권)를 찬술하였다. 이어서 원측의 제자인 도증이 「成唯識論要集」(14권)을 찬술하여 스승의 견해를 뒷받침하자, 규기의 제자인 혜소가 다시 「성유식론요의등초」를 찬술하여 원측과 도증의 유식학적 견해에 대해서 200여 회 인용을 하면서 논박을 전개하고 있다.¹⁶⁾ 그러나 이와 같은 비판과 논박은 논리와 근거가 미흡하고 세밀하지 않아 학계에서 많은 지지를 얻지를 못하고 있다.¹⁷⁾

「요의등초」의 전체적인 내용은 「성유식론」을 4部로 나누어 주석하고 있다. 1부는 論起所因門으로서 4門인 부파가 분열한 장소·시간·이유, 그리고 「성유식론」이 습득된 경과 등에 대해서, 2부는 宗同異明門으로서 教益·時利·宗詮·體性不同 등의 네 가지 동이에 대해서, 3부는 歸在明門으로서 4가지를 다루고 있다. 즉 「성유식론」이 藏·分·乘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성유식론」의 명칭에 대해서, 그리고 4부는 本論인 本文解釋門으로서 혜소는 이를 다시 셋으로 나누어 언급하고 있다. 첫째는 年主辨으로서 「성유식론」의 출현시기와 논주에 대한 설명이다. 둘째는 支分明으로서 支分은 「유가사지론」의 광범위한 이치를 선양하기 위해 저술된 문헌들이 「성유식론」을 포함하여 모두 10종류가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正果解로서 본문의 논의를

15) 西尾 京雄·富貴原 章信, 『國譯一切經和漢撰述部』論疏部19·20, 改訂版(東京:大東出版社, 1982), 3. ; 정영근, “『成唯識論了義燈』의 圓測說 비판,” 『불교학연구』 제3호(서울: 불교학연구회, 2001), 59-60 참조.

16) 惠沼, 『成唯識論了義燈』, 大正藏43, 666b24-c4.

“西明云。然諸釋中所宗各異。護法難陀等多述宗旨會釋違文。火辨親勝正釋本頌以標論意。安惠菩薩建立比量斥他宗失。由斯諸本別行攝義皆不周悉者今意未詳。檢論上下未見安惠偏多破斥。准本疏釋廣頌上兩句破我法已下云多護法文。親承三藏執筆綴文糝唯識人。傳定不謬。餘非執筆。縱時諮問多意定之。所有判文論大綱紀非可爲定。合譯意者如樞要說。(“西明(=圓測)은 말하기를 ‘그런데 여러 해석에서 중지의 중점을 둔 것이 각각 다르다. 護法과 難陀 등은 중지를 다방면으로 기술하면서 서로 어긋나는 문장을 회통시켰고, 火辨과 親勝은 本頌을 바로 해석하면서 論의 의미를 드러내었다. 安惠보살은 比量을 건립하면서 서로 다른 입장들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본이 개별적으로 유행되면 개념을 융섭하는 것이 모두 두루 미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지금의 뜻으로 보면 자세하지 않다. 「성유식론」의 위와 아래를 조사해 보아도 안혜가 많아 破斥하였음이 보이지 않는다. 「本疏」의 주석에 따르면 廣頌 위의 양구는 我法의 이하를 파적하였다고 말해진다. 호법의 글이 많은 것은 현장 삼장이 직접 계승하였기 때문이다. 집필하고 綴文하면서 唯識을 糝譯한 사람이니, 전하는 것이 결단코 잘못될 수 없다. 나머지 부류들은 집필하지도 않으면서 그대그 때 많은 의미를 자문하면서 그것을 정하였다. 그러므로 「성유식론」을 판단한 글의 큰 紀綱이 바르다고 할 수 없다. 번역한 의미와 부합하는 것은 「樞要」의 설이다.”)

17) 황성기, 『圓測의 唯識學說 研究』(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75), 26-27. ; 정영근, “『成唯識論了義燈』의 圓測說 비판,” 『불교학연구』 제3호(서울: 불교학연구회, 2001), 60. ; 남무희, 『신라 원측의 유식사상 연구』(서울: 민족사, 2009), 201-209. ; 황성기, “唐窺基와 新羅 圓測의 相違說 研究(1),” 『한국불교학』 제4집(서울: 한국불교학회, 1979), 78-93 참조.

따라가며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지점에서부터 해소는 원측과 도증의 유식학적 견해를 인용하면서 논박하고 있다. 이것은 『요의등초』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언급되고 있다.

『요의등초』의 총 4부 중에서 앞의 3부가 1권 전반부까지 이어지고, 이후는 『성유식론』의 본문을 해석하는 내용으로 각각 전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요의등초』는 2004년 1월 7일에 順天 松廣寺 사천왕상 중의 북방천왕에서 발견된 9종 10책¹⁸⁾ 중의 하나이다. 북방천왕에서 발견된 『요의등초』는 興王寺 敎藏都監에서 판각된 원간본(현존하지 않음)을 저본으로 하여 世祖年間에 刊經都監에서 翻刻된 원간본이다.¹⁹⁾

송광사 소장의 간경도감본은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판본으로서 권3·4만 현존하고 있다. 이 판본은 전체 중 앞부분의 훼손이 심하여 원본을 보수하였으며 보수된 책의 크기는 세로 41.0cm·가로 29.2cm이다. 변란은 사주단면으로 되어 있으며, 행자수는 28행·23자이다. 全郭은 세로 25.8cm·가로 25.8cm이며, 그리고 발폭은 2.3-2.7cm·촉수는 3cm 이내에 16촉으로 확인된다. 현재 송광사 간경도감본은 方册本²⁰⁾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총 77장으로 권3은 38장·권4는 39장이다. 판미제는 ‘燈’으로 기록되어 있다. 본 판본은 零本 1책에 해당되므로 원간기 및 중수기 등에 대한 기록은 없다.²¹⁾ 간경도감본은 보물 제1468호로 지정되어 있다.

국내외에 현존하고 있는 『요의등초』의 판본과 활자본들은 다음과 같다.²²⁾

[판본]

- ① 松廣寺 소장(卷3·4, 刊經都監本, 方册本)
- ② 山西省 曲沃縣圖書館 소장(卷4, 醴州乾明院刻本, 卷子本)²³⁾
- ③ 天理大 圖書館 소장(卷2, 春日版, 12세기경 平安朝末期刊本, 卷子本)²⁴⁾

18) 조계산 송광사 사천왕상 중의 북방천왕 북방에서는 『法華文句記』 卷5·6, 『法華文句記』 卷7·8, 『圓覺經大疏釋義抄』 卷13,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卷1·2, 『妙法蓮華經續述』 卷5·6, 『成唯識論了義燈抄』 卷3·4, 『金剛鉤顯性錄』 卷3·4, 『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抄』 卷5·6, 『成唯識論述記』 卷6上半·下半, 『大威德經陀羅尼』 卷4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동방천왕상에서는 1종 1책, 남방천왕상에서는 2종 2책, 서방천왕상에서는 1종 1책이 각각 발견되었다. 강순애 외 편, 『송광사 사천왕상 발굴자료의 종합적 연구』(서울: 아세아문화사, 2006), 25-27 참조. ; 최중남, “광교원본 『성유식론술기』 권6의 판본 대조 연구,” 『고려 제종교장 학술발표회 -의천의 교장, 천년의 지혜를 미래로-』,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13, 146 참조.

19) 강순애 외 편, 『송광사 사천왕상 발굴자료의 종합적 연구』(서울: 아세아문화사, 2006), 27 참조.

20) 원래 卷子本 형식으로 판각되었으나 후대에 좌우단변을 판각하여 방책본 형태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21) 板式에 대한 정보는 『高麗敎藏結集 및 DB構築事業 연구팀』이 2012년 12월8일에 서지조사한 것 중에서 일부 내용을 참조한 것이다.

22) 이들은 『高麗敎藏結集 및 DB構築事業 연구팀』에서 불교학 및 서지학 조사를 완료한 판본들이다.

23) 행자수는 28行·23字임.

24) 천리대 도서관본에 대한 서지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零本 1册(卷2) ; 판종: 木板本 ; 변란: 無 ; 자고: 23.7cm ; 전광: 28.3×56.7cm ; 계선: 무계 ; 행자수: 30行·21字 ; 주: 쌍행 ; 판구: 無 ; 어미:

④ 大谷大 圖書館 소장(卷1-7, 南都古板本)²⁵⁾

[활자본]

① 「卍續藏經」 卷78

② 「大正藏」 卷43²⁶⁾

이와 같은 판본들과 활자본들 중에서 송광사 소장 간경도감 판본, 산서성 곡옥현도서관본, 대정장본, 그리고 卍속장경본들과 대조하면 일부 단어, 문장 등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요의등초」의 송광사 소장 간경도감본과 대정장본을 서로 대조하여 혜소의 원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산서성 곡옥현도서관본, 천리대 도서관본, 卍속장경본들을 각각 참조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대조·연구는 唐시대에 전개된 유식 사상연구, 종파적·논사별 견해, 그리고 인도 유식 사상과 중국 유식 사상에 있어서 변화와 변용 등에 대한 생산적인 후속 연구에 큰 의미와 자료적 가치가 있으리라고 본다.

2. 간경도감본 「요의등초」 권3·4의 판본대조 연구

「요의등초」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4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4부 중에서 네 번째인 本文解 釋門은 또한 年主辨, 支分明, 正科解의 3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대조·연구하는 권3·4의 내용은 이들 내용 중에서 3章의 세 번째 章인 正科解에 상응한 내용이다.

본 장에서는 ‘有三有爲之有爲相’에 대한 주석으로 시작하여 能變(pariṇāma), 그리고 유식사상에서 마음의 구조[心體]와 변화[心作用]를 5位 100法로 언급하고 있는 法數 중에서 첫 번째인

無 : 발폭·축수: 세로발 보이지 않음, 16축 : 종이두께: 0.7-0.09mm, 남권회, “일본소재 불교 교장문헌의 서지조사,” 『서지학연구』 제67집(서울: 한국서지학회, 2016), 3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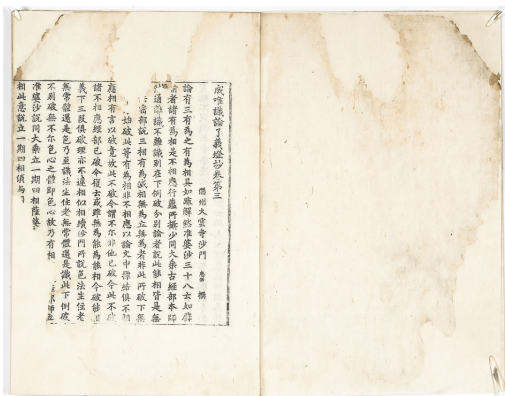
25) 대곡대 도서관본에 대한 서지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정: 五針眼, 線裝本 ; 판종: 木板本 ; 권책수: 全13冊. 변란: 四周雙邊 ; 半郭: 21.5×16.0cm ; 판구: 大黑口, 上下內向二葉花紋黑魚尾 ; 계선: 무계 ; 행자수: 9行·19字 ; 註雙行: 27.4×19.2cm ; 권수제·권말제: 成唯識論了義燈 ; 판심제: 唯識了義 ; 제침제(板刻): 唯識論了義燈 ; 서근제: 義燈 ; 서배제: ‘乙五一’, ‘了義燈’ ; 간사지: 京西星書林井 丁子屋庄兵衛, 京五丁子屋定七條橋 ; 지질: 楮 ; 두께: 0.05-0.06mm ; 색차: L 82.6, a+ 2.7, b+ 17.9. 본 서지사항은 『高麗敎藏結集 및 DB構築事業 연구팀』이 서지조사한 내용을 참조한 것이다.

26) 대정장본에 수록되어 있는 「요의등초」는 寬文七年版本, 東大寺藏古版本, 藥師寺藏古寫本, 大谷大學藏古版本들을 이용하였다. 大正藏43, 649, 각주 1 참조. 「요의등초」에 대한 번역본은 현재 일본어 번역본이다. 번역본으로서는 西尾 京雄·富貴原 章信, 『國譯一切經和漢撰述部』論疏部19·20, 改訂版(東京: 大東出版社, 1982)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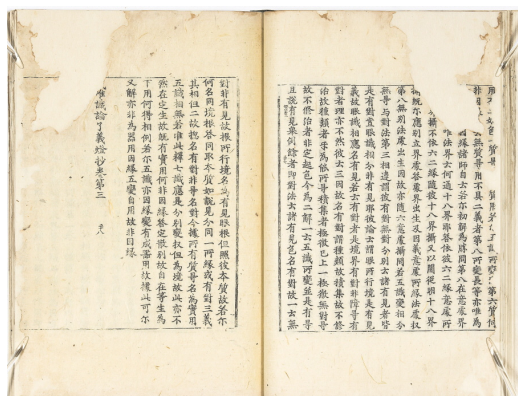
心王法の 初能變(alaya-vijñāna, 제8식), 第二能變(manas, 제7식) 등에 대해서 주석하고 있다. 특히 권4末에서는 第二能變에 대한 주석으로서 難陀, 火辨, 安慧, 護法 논자들의 견해를 언급하면서 주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송광사 소장본의 간경도감본, 대정장본, 근속장경본, 곡옥현 도서관본의 권제 3·4의 범위 및 정보표기, 그리고 간경도감본의 권수·권말과 산서성 곡옥현도서관 소장본의 권말(권말) 사진들은 다음과 같다.

간경도감본	대정장본	근속장경본	곡옥현 도서관본
권제3, 1-38	권3, 707c20-726a11	권3本,106前a1-118前a12 권3末,118前b1-123後a9	
권제4, 1-39	권4本,726a15-736b10 권4末,736b14-744c25	권4本,123後a10-123後a6 권4末,123後a7-141後a18	권4, 29-31,38,39



[송광사 소장본 권제3 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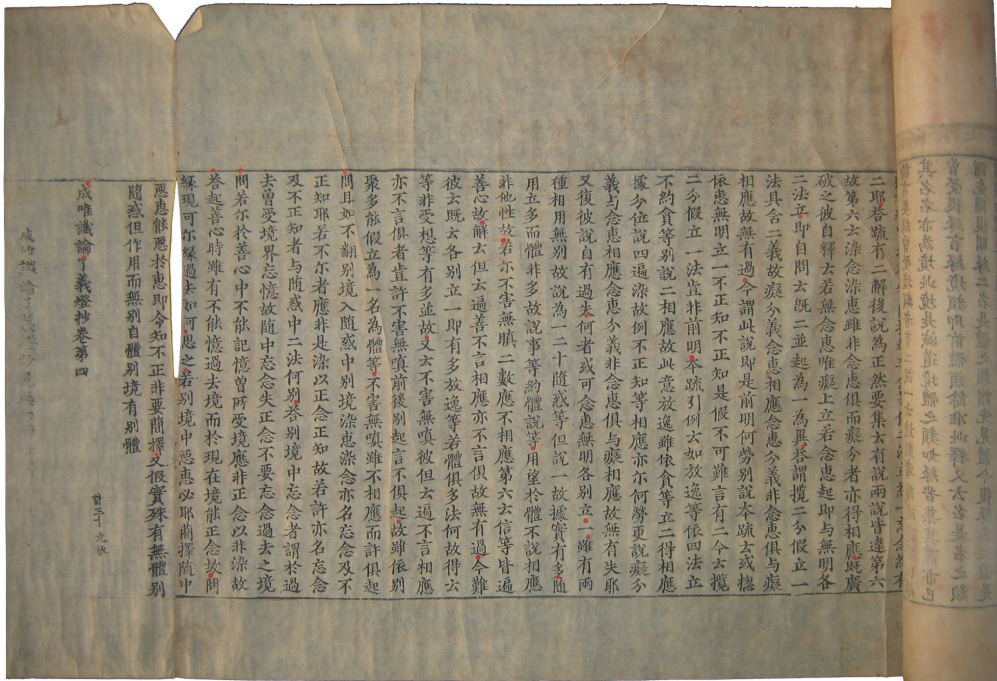
[송광사 소장본 권제3 권말]



[송광사 소장본 권제4 권수]



[송광사 소장본 권제4 권말]



[산서성 곡옥현도서관 소장본 권제4 권말]

그동안 불교학연구에 있어서 많은 산스크리트어 원전(=대승불전)이 산일된 경우는 중앙아시아, 티베트, 네팔 등지에서 발견된 필사본 및 판본들을 한역본·티베트어 번역본들과 대조·연구, 그리고 한역본의 경우는 이역본들과 대조·연구, 필사본과 판본과의 대조·연구, 대장경별 대조·연구, 지역별 대장경과 각각 대조·연구 등으로 문헌학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도 이와 같은 문헌학적인 대조·연구로서 2004년 1월7일에 송광사 사천왕상 북방천왕에서 발견된 간경도감본 『요의등초』 권3·4를 대정장본과 중점적으로 대조·연구하고, 그리고 천리대 도서관본(권2), 근속장경본, 산서성 곡옥현 도서관본(권4말의 일부)을 참조하여 대조·연구하고자 한다.

2.1 단어의 삭제

- *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간경도감본 및 곡옥현도서관본의 정보표기는 권·쪽, 행(예: 3-1.7)의 순서로 기록함.
- * 대정장본의 괄호() 속에 들어 있지 않은 단어는 간경도감본에 삭제되어 있음.

* 간경도감본은 곡옥현 도서관본의 번각본으로서 권·쪽·행이 일치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곡옥현 도서관본(권4의 일부)의 경우는 별도로 정보표기를 하지 않고 간경도감 정보표기 다음에 ‘*’ 표기로 대신한다.

번호	정보표기	대정장본	정보표기	간경도감본
1	707c27	(始)例(破)	3-1.7	(始破)
2	707c28	(此等)雖立作	3-1.7	(此等)
3	707c29	(有言)已他(破)	3-1.8	(有言以破)
4	707a2	(今復)破故	3-1.9	(今復)
5	708a3	(下)破無爲義二(段)	3-1.10	(下)三(段)
6	708a19	(二)者(彼)	3-1.21	(二彼)
7	708a25	入(正理論)	3-1.25	(正理論)
8	708a25	(實)德業(等量)	3-1.25	(實等量)
9	708a29	(他)不定失言.堅等異品.說之相言是(不定過.)	3-1.25	(他不定過)
10	708b18	(所相.)別實有.不別實有.(是)	3-2.10	(所相是)
11	708b20	(差別.)是差別故.又設若爾(彼)	3-2.12	(差別故)
12	708b22	(立)量(實)	3-2.13	(立實)
13	709a16	外(又救)云	3-3.21	(又救)
14	726a20	(已)略(明故)	4-1.6	(已明故)
15	727a5	(引現)起心	4-2.25	(引現)
16	727a8	警(覺現在)	4-2.27	(覺現在)
17	727a14	(阿賴耶)識	4-3.3	(阿賴耶)
18	727b11	(名)得(作意)	4-3.21	(名作意)
19	727b13	(引)心(故)	4-3.22	(引故)
20	728a4	(無法)無(有)	4-4.25	(無法有)
21	728a7	既無作用(何非過去)	4-4.27	(何非過去)
22	728a8	(然)准(婆沙)	4-4.27	(然婆沙)
23	740b5	(身識)爲依	4-29.23*	(身識)
24	740b10	(彼)非(所)	4-29.26*	(彼所)
25	740b20	(時)家	4-30.5*	(時)
26	740c11	(不同)境	4-30.19*	(不同)
27	740c13	(既)以(有境)	4-30.20*	(既有境)
28	740c14	(可)種子	4-30.20*	(可)
29	740c19	不依解根(義)	4-30.24*	(義)
30	740c25	隔自(識)相(故)	4-30.28*	(識故)
31	741a1	(俱)悉(無過)	4-31.3*	(俱無過)
32	744c6	若用(若體)	4-38.18*	(若體)
33	744c17	只忘(失)	4-38.25*	(失)
34	774c23	(非要)邪	4-39.1*	(非要)

2.2 단어·문장의 첨삭

* 간경도감본의 괄호() 속에 들어 있지 않은 단어·문장들은 추가된 것임.

번호	정보표기	대정장본	정보표기	간경도감본
1	708a3	(下破)	3-1.10	(何)三(破)
2	708a7	(故有)	3-1.12	(故)乃(有)
3	708b1	(在宗中)	3-1.27	收(在宗中)
4	708b7	(在有爲中)	3-2.3	(在有)無(爲中)
5	708c7	(一法亦)	3-2.22	(一法)一時(亦)
6	708c11	(師一刹那)	3-2.25	(師)彼作是說若(一刹那)
7	708c26	(法爲名)	3-3.8	(法)卽是異滅能衰壞者爾時此法(爲名)
8	709a6	(因緣)	3-3.14	(因緣)在未來
9	709a14	(頓起)	3-3.19	(頓)生(起)
10	726b20	(自識)	4-1.25	(自)性(識)
11	726b26	(了者)	4-2.1	(了)別(者)
12	726c12	(依大不共)	4-2.11	(依大)乘(不共)
13	727a1	(現前者)	4-2.22	(現前)故(者)
14	727b3	(廻轉性者)	4-3.15	(廻轉性)故(者)
15	727c19	(論)	4-4.15	後(論)
16	740a23	(中種)	4-29.15*	(中種)子
17	740b4	(斯義)	4-29.22*	(斯)四(義)
18	74013	(下解)	4-29.28*	(下)論(解)
19	740b14	(心心法)	4-30.1*	(心心)所(法)
20	740b17	(杖因託緣)	4-30.3*	(杖)自(因託)他(緣)
21	740b20	(有)	4-30.5*	(有)異
22	740b22	(不簡不以)	4-30.7*	(不簡)何(不以)
23	740c29	(識取)	4-31.2*	(識)外(取)
24	741a14	(言相順)	4-31.11*	(言)近(相順)
25	744b21	(不可言有)	4-38.8*	(不可)難(言有)
26	744b26	(義念)	4-38.12*	(義)與(念)
27	744c7	(何得云)		(何)故(得云) ²⁷⁾

27) 간경도감본은 단어가 결락되어 있다. 곡옥현 도서관본: 4-38.17.

2.3 단어를 중복하여 판각

* 간경도감본에는 동일한 한자를 중복하여 판각함.

번호	정보표기	대정장본	정보표기	간경도감본
1	708a23	(四)相	3-1.23	(四)相相
2	727b5	(所)破	4-3.16	(所)破破

2.4 음이 같은 한자로 판각

* 간경도감본에는 음이 동일한 한자로 잘못 판각함.

번호	정보표기	대정장본	정보표기	간경도감본
1	708a13	辨	3-1.17	弁
2	708c14	衰	3-2.27	熟
3	709a23	彼	3-3.24	破
4	726a26	已	4-1.9	以
5	726b21	且	4-1.25	只
6	726b25	據	4-1.28	舉
7	726c7	只	4-2.8	且
8	727a6	謂	4-2.25	爲
9	727a20	惠	4-3.7	慧
10	727c2	破	4-4.5	彼
11	727c2	隨	4-4.5	雖
12	740b10	辨	4-29.26*	辯
13	740c26	溜	4-30.28*	琉
14	744c10	取	4-38.21*	聚

2.5 동일한 의미를 갖는 한자로 판각

* 간경도감본에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 한자로 판각함.

번호	정보표기	대정장본	정보표기	간경도감본
1	708c15	則	3-2.28	卽
2	708c17	先	3-3.1	前
3	709a4	起	3-3.13	生
4	726c18	起	4-2.14	生
5	740a29	杖	4-29.19*	仗

2.6 의미가 비슷한 한자로 판각

* 간경도감본에는 의미가 비슷한 한자로 판각함.

번호	정보표기	대정장본	정보표기	간경도감본
1	707c21	述	3-1.2	撰 ²⁸⁾
2	708a21	立	3-1.22	成
3	708b9	言	3-2.4	云
4	726a17	體	4-1.3	性
5	726b1	卽	4-1.12	云
6	726c3	唯領	4-2.5	但
7	727b26	報	4-4.2	果
8	740b17	意	4-30.3	云
9	740c21	變	4-30.25	變
10	740c27	碍	4-31.1	碍
11	740a3	云	4-31.4	言

2.7 단어·문장을 바꾸어 판각

* 간경도감본에는 「요의등초」의 내용과는 다르게 단어·문장을 바꾸어 판각함.

번호	정보표기	대정장본	정보표기	간경도감본
1	707c21	苾芻 ²⁹⁾	3-1.2	沙門 ³⁰⁾
2	708b19	(應)脫一有字	3-2.11	(應)說云有宗有法差別
3	708b29	(俱)有等者.本云.初破	3-2.17	(俱)□□□牒外之詞(破)
4	708c7	爾	3-2.22	許
5	709a23	(故)二文(別)	3-3.25	(故)與前(別)
6	726a27	緣境用,(受)	4-1.10	顯自(受)
7	726a28	(此)卽緣用(故)	4-1.10	(此)行相顯自(故)
8	726b3	(以)了別	4-1.13	(以)作用
9	726b6	(不)爾	4-1.15	若(爾)
10	726b15	者	4-1.21	判

28) 천리대 도서관본: 撰: 근속장경78, 106前a2: 述: 대곡대 도서관본에서는 述(권1, 2, 5)撰(3, 6, 8, 10)을 병행해서 사용함. 본 서지사항은 「高麗敎藏結集 및 DB構築事業 연구팀」이 서지조사한 내용을 참조한 것이다.

29) 대곡대 도서관본: 苾芻.

30) 천리대 도서관본: 沙門 沼 撰.

번호	정보표기	대정장본	정보표기	간경도감본
11	727a11	卽	4-3.1	皆
12	727a25	現(根)	4-3.10	如(根)
13	727b5	故(廻趣者)	4-3.16	破(廻趣者)
14	727b6	(論)破執中	4-3.17	(論)或於一境
15	727b17	(小乘,何)部(所計)	4-3.25	(小乘)破(何所計)
16	727b21	(起)語	4-3.27	(起)須
17	727b26	從勝(不名)	4-4.2	說染(不名)
18	727c2	(救)破	4-4.5	彼(救)
19	727c9	(同)王所,(所變)	4-4.9	(同)見(所變)
20	727c15	(不許)緣	4-4.13	(不許)取
21	727c17	(不見)同聞	4-4.15	(不見)正文
22	727c25	(不)見等用應名過去	4-4.19	(無)去來
23	727c29	(婆沙第十)二(云)	4-4.22	(婆沙第)十(云)
24	728a3	評	4-4.24	理
26	740a25	(舊合)者	4-29.17*	(舊合)用
26	740b26	(三無)用	4-30.9*	(三無)同境
27	740b26	情	4-30.9*	說
28	740b29	五	4-30.11*	四
29	740c2	卽	4-30.12*	須
30	740c3	五	4-30.13*	四
31	740c5	臣	4-30.15*	所
32	741a2	雖	4-31.3*	設
33	741a4	形	4-31.4*	對
34	741a5	約	4-31.5*	望
35	741a7	爲	4-31.6*	須
36	741a14	二	4-31.11*	三
37	744b25	(更)言故		(更)說 ³¹⁾
38	744b28	(有)多(種)		(有)兩(種) ³²⁾
39	744c10	名功(能)	4-38.21*	多(能)
40	744c19	(非)忘(念)	4-38.26*	(非)正(念)

31) 간경도감본은 단어가 결락되어 있다. 곡옥현 도서관본: 4-38.10.

32) 간경도감본은 단어가 결락되어 있다. 곡옥현 도서관본: 4-38.13.

2.8 단어의 倒置

* 간경도감본에는 단어가 도취되어 판각됨.

번호	정보표기	대정장본	정보표기	간경도감본
1	708a5	生老住	3-1.11	生住老
2	708a17	定別有體	3-1.19	定有別體
3	708a28	應離體別有說	3-1.26	應別有體說
4	708c21	減壞	3-3.9	壞減
5	726b25	所說	4-1.28	說所
6	726c25	論二	4-2.19	二論
7	740b12	非前後	4-29.27*	前非後
8	740b22	俱得	4-30.6*	得救
9	740b22	名有	4-30.6*	有名
10	740b23	非前後	4-30.7*	前非後
11	741a3	此非彼	4-31.4*	此彼非
12	744c10	依雖		雖依 ³³⁾
13	744c12	染念染惠	4-38.22*	染惠染念

2.9 자형이 비슷한 한자로 판각

* 간경도감본에는 자형이 비슷한 한자로 의미를 다르게 판각함.

번호	정보표기	대정장본	정보표기	간경도감본
1	707c29	但	3-1.7	俱
2	708a12	遮	3-1.16	違
3	708a23	更	3-1.23	便
4	708b19	脫	3-2.11	說
5	709a1	亦	3-2.11	不
6	726b29	似	4-2.3	以
7	726c29	憶	4-2.21	意
8	727a10	理	4-2.28	現
9	727c19	救	4-4.16	叙
10	727c24	雖	4-4.19	唯
11	728a5	後	4-4.26	復
12	740b16	可	4-30.2*	何
13	740b26	大	4-30.9*	本
14	740c21	親	4-30.25*	現
15	741a1	根	4-31.3*	相
16	744c22	邪	4-38.28*	耶

33) 간경도감본은 단어가 결락되어 있다. 곡옥현 도서관본: 4-38.19.

2.10 이체자

번호	정보표기	대정장본	정보표기	간경도감본
1	708a1	爾	3-1.8	尔
2	708a15	定	3-1.18	定
3	708a15	轉	3-1.18	轉
4	708b2	總	3-1.27	總
5	708b5	隨	3-2.2	隨
6	708b26	決	3-2.16	決
7	708b28	愆	3-2.17	愆
8	708c6	那	3-2.22	那
9	708c9	答	3-2.24	答
10	708c13	互	3-2.27	互
11	708c19	刹	3-3.2	刹
12	727a9	趣	4-2.27	趣
13	728a1	最	4-4.23	最
14	704a26	取	4-29.18*	取
15	740b11	及	4-29.26*	及
16	740b26	隔	4-30.28*	隔
17	741a17	陀	4-31.13*	陀
18	741a20	從	4-31.15*	從
19	741a20	或	4-31.15*	或

2.11 대정장본의 誤記

* 대정장본의 편찬과정에서 교감의 오류에 의해 오기된 한자.

번호	정보표기	대정장본	정보표기	간경도감본
1	708a27	(所體等者)	3-1.25	(所)相(體等者)
2	709a25	云俱舍云	3-3.25	云俱舍 ³⁴⁾
3	727c25	因類	4-4.20	同類
4	774b20	惑	4-38.7*	或

34) 卍속장경78, 107前b7: 疏俱舍云.

3. 나가는 말

본 논문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유일하게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본사 순천 송광사 성보박물관에 소장 중인 간경도감본 보물 제1468호 『성유식론요의등초』 권3·4의 일부 주석내용을 활자본인 대정장본, 중국 산서성 곡옥현 도서관에 소장 중인 판본의 일부(권4)를 대조·연구하였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 천리대 도서관 소장본(권2)과 卍속장경들을 각각 참조하였다.

이와 같은 대조·연구는 교감과정, 판각과정, 전래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오기, 오각, 오류 등을 고찰하여 찬술자의 原義를 찾아 후속연구를 할 수 있는 토대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요의등초』에 있어서도 판본별, 대장경별, 그리고 지역별 판본 등에서 많은 부분의 내용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간경도감본에서는 중앙아시아에서 기원 및 축원의 의미를 담아 사경한 필사본들과 같이 판각, 혹은 교감과정에서 지시대명사, 명사, 조사, 접속사, 부정사, 문장 등의 삭제, 첨삭, 오기, 오류 등을, 그리고 대정장본에서는 교감자의 오류를 찾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예들은 본 논문에서 대조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다. ① 단어의 삭제, ② 단어·문장의 첨삭, ③ 단어를 중복하여 판각, ④ 음이 같은 한자로 판각, ⑤ 동일한 의미와 음을 갖는 한자로 판각, ⑥ 의미가 비슷한 한자로 판각, ⑦ 단어·문장을 바꾸어 판각, ⑧ 단어의 倒置, ⑨ 자형이 비슷한 한자로 판각, 그리고 ⑩ 이체자 등이다.

본 대조·연구에 의하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요의등초』는 2가지 유형으로서 송광사 소장 간경도감본과 산서성 도서관본이 일치하고, 그리고 대정장본, 卍속장경본이 서로 일치하다. 간경도감본은 산서성 도서관본과 판식이 동일하여 자형, 행·지수, 삭제·첨삭된 단어, 이체자 등이 모두 일치하다. 이에 간경도감본은 산서성 도서관본의 번각본이다. 그리고 대정장(1923-1934년)본은 권1(659쪽) 각주1의 기록(“寬文七年(1667)版本, 東大寺藏古版本, 藥師寺藏古寫本, 大谷大學藏古版本”)에 서와 같이 4종류 판본들을 사용하여 교감·영인을 하였다. 그러나 대정장본은 먼저 京都 藏經書院에서 영인된 卍속장경(1905-1912년³⁵⁾)의 내용과 일치하다. 따라서 현재 국내외에서 유통되고 있는 『요의등초』는 내용별로 2가지 유형이 현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은 현재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 판각·영인된 대장도감본 『요의등초』가 현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宋本인 산서성 도서관본, 대장도감본, 간경도감본의 順으로 이어지는 판본별·내용별 유통과정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만약에 대장도감본이 발견되고, 그리고 일본의 각 사찰·대학 등에 소장되고 있는 『요의등초』의 판본 및 사본들이 공개가 된다면 『요의등초』

35) 최중남 외 엮음, 『역경학 개론』 (서울: 운주사, 2011), 315-316 참조.

의 판본별·내용별·지역별 전래 지도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존하는 『요의등초』의 일부 판본과 활자본들만을 서로 대조·연구하여 판본 및 활자본들에 있어서 찬술자인 혜소의 원의와 다르게 전래되고 있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와 함께 본 논문에 이어서 다양한 불교학·서지학적 후속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순애 외 편. 『송광사 사천왕상 발굴자료의 종합적 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6.
- 結城 令聞. 『唯識學典籍志』. 東京: 大藏出版, 1962.
- 高麗敎藏結集 및 DB構築事業 연구팀. 『高麗 諸宗教藏 章疏目錄 및 現況』.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13.
- 김성수. “고려 諸宗教藏의 가치와 의의에 관한 연구.” 『불교학연구』 제30호(서울: 불교학연구회, 2011).
- 남권희. “새로 發見된 高麗 續藏經의 覆刻本 3種에 관한 考察.” 『圖書館學論集』 제16호(서울: 한국도서관·정보학회, 1989).
- 남권희. “일본소재 불교 교장문헌의 서지조사.” 『서지학연구』 제67집(서울: 한국서지학회, 2016).
- 남무희. 『신라 원측의 유식사상 연구』. 서울: 민족사, 2009.
- 桑上 正進·袴谷 憲昭. 『玄奘』. 東京: 大藏出版, 1981.
- 西尾 京雄·富貴原 章信. 『國譯一切經和漢撰述部』 論疏部19·20. 改訂版. 東京: 大東出版社, 1982.
- 의천. “대각국사문집.” 『한국불교전서』 권4.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82.
- 이지관.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3. 서울: 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6.
- 정영근. “『成唯識論了義燈』의 圓測說 비판.” 『불교학연구』 제3호(서울: 불교학연구회, 2001).
- 최종남 외 著. 『역경학 개론』. 서울: 운주사, 2011.
- 최종남. “광교원본 『성유식론술기』 권6의 판본 대조 연구.” 『고려 제종교장 학술발표회 -의천의 교장, 천년의 지혜를 미래로-』.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13.
- 최종남. “대각국사 의천과 유식장소에 관한 일고.” 『서지학연구』 제62집(서울: 한국서지학회, 2015).
- 최종남. “중국·티베트 불전 목록들에 있어서 부와 『신편제종교장총록』에 있어서 부의 분류체계에 대한 대조 연구.” 『서지학연구』 제67집(서울: 한국서지학회, 2016).
- 한국불교문화연구원 편. “金山寺.” 『韓國의 寺刹』 제11호(서울: 일지사, 1977).
- 황성기. “唐窺基와 新羅 圓測의 相違說 研究(1).” 『한국불교학』 제4집(서울: 한국불교학회, 1979).
- 황성기. 『圓測의 唯識學說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75.